

# 2024년 제3차 생태환경분과위원회 회의록

## □ 회의개요

- 일 시 : 2024. 7. 9.(화) 10:00
- 장 소 :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의실
- 참 석 : 총 17명의 위원 중 11명 참석
- 참 관 : 전영호 공동의장

연번	성명	소속 및 직위	참석	비고
1	이덕자	행복중심진해소비자생활협동조합 부 이사장	○	위원장
2	윤석연	(전)창원중부 녹색어머니회 교육이사	○	간사
3	김용화	창원특례시민협의회 마산회원구위원장	○	
4	김은주	생활정치아카데미 창원시민회의 홍보위원장	○	
5	김진순	대성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소장		
6	노경협	보이텍코리아 대표	○	
7	문성용	(주)물환경 대표		
8	박소연	동영미디어 대표		
9	박은울	한국생태환경연구소 사무처장	○	
10	박종기	룩스전기통신 대표	○	
11	박진수	(주)유존건설 대표이사		
12	손영섭	(사)대한해협해전 전승기념사업회 수석 부회장	○	
13	이광식	자연보호연맹창원시협의회 회장	○	
14	이민영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15	최은하	창원특례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의원		
16	한정희	K-ECO연구소 기획부장		
17	황보경옥	진해구 덕산동 주민자치회 교육환경문화분과장	○	

## □ 회의록

### 1.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 김연옥 사무국장이 총 17명의 위원 중 11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충족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하다.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5항)

### 2. 참석위원 인사

- 참석위원들이 상호 인사를 나누다.

### 3. 전차회의록 보고

- 김연옥 사무국장이 전차 회의록을 보고하다.

## 4. 2024년 상반기 생태환경분과위원회 사업 평가

### 1) 환경실천 교육 및 체험 부스 운영

- 김연옥 사무국장이 상반기 생태환경분과에서 시행하였던 환경실천 교육 및 체험 부스, 투명 유리 조류충돌 시민 강좌 개최, 바다의 날 기념 연안정화활동에 대해서 설명하다.
- 이덕자 위원장이 사업 평가를 통하여 올해 했던 사업을 내년에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다고 하다.
- 황보경옥 위원이 분리배출 체험과 관련하여, 생각보다 시민들이 많이 헛갈려하는 부분들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우리 모두가 다 교육이 된 상태에서 그걸 정확하게 전달해야 시너지 효과가 더 있음을 강조하다. 또한 일정한 공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었음에 아쉬웠기 때문에 피드백을 통하여 보완될 수 있기를 희망하다. 또한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답례로 무언가를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다.
- 이덕자 위원장이 분리배출 체험 교구를 우리가 제작을 해 보는 것을 생각했다고 하다.
- 황보경옥 위원이 자석보다는 벨크로 형태로 붙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하며 종류별로 벨크로 색깔을 다르게 해 놓으면 누군가가 교육하더라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신경썼으면 좋겠다고 하다.
- 전영호 공동의장이 어린이들이 참여한 점이 무척 좋았다고 하며 (분리배출 교구를 제작한다면) 주민센터의 담당자와 사전 미팅하여 동별로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하다.
- 이덕자 위원장이 주차난이 되게 힘들었음을 밝히며, 다음번에는 아파트에 양해를 구해 그런 안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다

### 2) 투명유리조류충돌 시민강좌

- 김은주 위원이 직접 실천(조류충돌방지스티커 부착)을 하기 위해 교육을 듣고자 했는데 교육이 처음 듣는 사람도 어렵지 않게 예시를 들어 너무 쉽게 가르쳐주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다.
- 이덕자 위원장이 큰 새 그림들(잘못된 조류 충돌 스티커로 효과가 없음)이 아무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행정이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같이 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하다. 지속협에서 교육을 진행할 때 기관 및 부서들도 연락해서 같이 좀 오게하면 어떨지 제안하다.
- 윤석연 간사가 (강사가)전문가라는 게 확실히 느껴졌다고 얘기하며, 전문가이기 때문에 쉽게 설명이 가능했다고 하다. 매 스티커 같은 경우는 왜 전문가의 의견을 듣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하다.

### 3) 바다의 날 연안정화활동

- 이광식 위원이 진행 날짜가 월요일이었는데 홍보 활동을 하기에는 취지와 좀 맞지 않았음을 얘기하다. 주말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매우 많이 모이기 때문에 정화활동의 경우는 보람이 있지만 홍보활동을 할 때는 조금 더 적합한 날짜를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하다.
- 이덕자 위원장이 정화활동은 월요일이 맞는 것 같고 홍보를 하기에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것에 공감하다.
- 이광식 위원이 버린 것을 줍는 건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우리가 열심히 교육을 해서 아이들이 안 버릴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다.
- 이덕자 위원장이 내년에는 이런 기획을 한다면 주말에 날을 잡아서 제대로 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리하겠다고 하다.

## 5. 2024년 하반기 생태환경분과위원회 사업 논의

### 1) 기후환경문화축제 내 생태환경분화 홍보부스 운영 논의

- 전영호 공동의장이 9월 예정되어있는 기후환경문화축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다.
- 이덕자 위원장이 우리 분과가 차지하는 공간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질문하다.
- 김연옥 사무국장이 지난 번 동마산 JC때와 비슷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하다.
- 이덕자 위원장이 9월 11일에 위원들이 100% 참석하여 분리 배출 교육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하며 그 이전에 분리배출 교구 제작과 관련한 아이디어를 주실 것을 요청하다.

### 2) 투명유리조류충돌방지 실천 사업 추진 논의

- 김은주 위원이 높은 곳은 스티커 부착 활동을 하기 어려움을 얘기하며, 장소를 잡을 때 중요한 것은 높으면 무조건 안된다고 하다.
- 이덕자 위원장이 우리가 다니면서 교육을 통해 확인한 사항들(효과 없는 매 스티커 등)을 체크하고 모니터링하여 그것을 시에다가 제안하는 그런 연습을 해보면 어떨지 제안하다.
- 사전에 조류충돌 방지 설계가 되어 나오는 공공 건축물과 권고 사항일 뿐인 개인 건축물에 대한 지원 관련 토의가 오가다.
- 이덕자 위원장이 개인 건축물에 지원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을 얘기하며 공익적인 목적임을 말하다.
- 전영호 공동의장이 다음에 이 부분을 다시 논의할 때 조례를 손봐야 한다면 담당하는 시의원을 모시면 좋겠다고 하다. 박○○의원 등 초선으로 의회에 들어가 열정 있는 사람들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분과 회의에 모실 수 있게 전화를 하겠다고 하다.
- 황보경옥 위원이 시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처럼 시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 사업이 지속성을 가져야 하는데 얼마 못 가 끝이 나버리는 경우가 있

음을 지적하다. 환경수도창원에서 아이스팩만큼은 처음 시작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가져오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시의원님께 점검이 필요하고 우리 분과에서도 얘기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다.

- 전영호 공동의장이 다음에 시의원 어떤 분을 참여시켜야 하는지 미리 전화를 달라고 하다.
- 이덕자 위원장이 조례들이 만년 만들어지지만 얼마나 지속성이 있느냐는 누군가가 지켜보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야 하는데 우리 분과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보니 아쉬움이 있다고 하다. 이러한 것을 의원님들이 좀 지켜볼 수 있도록 공부할 기회를 드리는 것도 우리의 역할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하다.

### 3) 환경 실천 쇼츠 영상 논의

- 윤석연 간사가 '공모전'이라는 표현보다 그냥 동영상 일기라고 하여 아주 일상적인 콘텐츠로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다. 전문적인 필요가 없으며 요즘 아이들이 쇼츠를 많이 찍기 때문에 시상도 하면서 부모님들의 참여도 끌면 좋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역할이 다 있으실 것이라고 말하다.
- 전영호 공동의장이 윤석연 간사의 말에 공감하며 초보는 초보답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다.
- 이후 동영상 촬영, 음악 저작권 등에 대한 토의가 오가다.
- 박은율 위원이 작년 동영상을 만들 때 경험을 토대로 회의에 오시는 분들이 지속성을 가지고 오시면 좋겠다고 하다. 한 번은 오고 다음번은 안 오고 하면 반복되는 말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비됨을 지적하다.
- 이덕자 위원장이 시간을 줄이고 내용은 알차게 하여 어쨌든 일단 TF팀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하다.
- 손영섭 위원이 대상을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대상별로 몇 개 만들어도 좋다고 하다.
- 이덕자 위원장이 9월 11일 행사 때까지 완성이 된다면 계속 틀어놓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만든 영상을 계속 틀어도 무리는 없을 것 같다고 하다.

## 6. 기타토의 및 일정 안내

- 김연옥 사무국장이 위원 워크숍(도산 서원)에 대한 설명을 하다. 하루 일정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아침 일찍 출발해서 저녁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다.
- 이덕자 위원장이 어차피 평일에 갈 테고 10, 11월 주말에는 일정이 완전히 힘들다고 하다.
- 김연옥 사무국장이 우리동네 SDGs 실천 지원 사업을 설명하고 협의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물품들이 있다면 동네에서 신청을 하여 주시면 지원해드리겠다고 하다.

## \* 주요 논의 사항 요약

- 9월 11일(수) 기후환경문화제 생태환경분과 홍보 부스 운영 예정
- 행사 전까지 생태환경분과 분리배출교구 제작
- 투명유리조류충돌 실천 활동의 경우 높은 건물 등 스티커 부착 활동의 위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사전 모니터링을 통하여 배운 사항들(효과가 없는 조류 스티커)들을 체크해보고 시에 제보하는 연습을 해볼 것을 제안
- 분과 회의 때 조례와 관련된 논의가 필요하다면 해당하는 시의원도 참여하여 의견을 공유하는 방향을 제안
- 차기 회의 이전까지 환경 실천 쇼츠 영상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서 등을 윤석연 간사가 공유 예정

## 7. 광고 및 폐회

- 이덕자 위원장이 차기 회의 일정으로 9월 3일(화) 10시를 제안하며 사전에 미리 영상 공모 절차 계획 등이 논의되었으면 한다고 하다. 또한 8월 중 분과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모일 수 있음을 사전 공지하다.

## □ 회의사진

